

尹·安 통화까지 공개 신경전...야 단일화 결렬 '네 탓' 공방

윤측 "철회 문자 못받아...결렬 회견 당황" 안측 "이전 제안 입장 표명 먼저 있었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결렬되면서 야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특히 안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철회하기 3시간여 전에 두 후보가 '핫라인 소통'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통화 내용을 놓고 양측에서 엇갈린 발언이 나오고 이것이 단일화 결렬의 책임론으로까지 연결되면서 양측간 진실공방 양상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21일 양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후보는 지난 20일 오전 9시 30분께 안 후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 후보는 바로 받지 않았고 이후 30분 뒤 윤 후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윤 후보는 안 후보에게 국민의당 유세차 사고와 관련해 위로 인사를 다시 한번 한 뒤 "물밑에서 이야기가 이 정도 오갔으니 이제 후보 둘이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윤 후보가 '후보 간 만남'을 제안한 사실 자체는 양당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후 안 후보의 반응을 놓고는 양측의 이야기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가 "둘이 만나는 것보다는 실무자를 정해 확실하게 뒤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윤 후보가 "실무 담당자를 정해 연락을 달라. 그러면 우리도 정하겠다"고 했다는 것이 국민의

힘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후보가 실무 협상자를 정하기로 하고 통화가 끝났는데 갑자기 단일화 결렬 회견을 하니 우리로서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안 후보가 만나자는 윤 후보에게 "제가 그전에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 먼저 입장 표명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가 제차 "만나자"고 하자, 안 후보가 "그전에 실무자들끼리 만나 큰 방향을 정한 다음에 후보 간 만나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설명이다.

양쪽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윤 후보는 안 후보의 발언을 '실무자를 통한 사전 협의'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해석했고, 통화 전날 이미 완주 의지를 굳혔던 안 후보는 '이미 늦었다'는 취지에서 '실무자' 발언을 꺼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통화에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다"며 "윤 후보가 만나자고 하니 안 후보는 '실무자 논의가 사전에 있어서 큰 방향을 정한 다음에 만나야 한다'고 말했고, 윤 후보는 이걸 실무자 논의를 진행하는 뜻으로 이해해 실무자를 정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후보가 이에 대해 의례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이야기한 뒤 통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통화를 마치고서 이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오후 1시 30분 회견 전 윤 후보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설명이다.

국민의당 측에선 세부 문자 내용도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안 후보는 문자에서 "윤 후보님, 저의 야권 단일화 제안 이후 일주일 동안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기다리거나 실무자간 대화를 지금 시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 저의 길을 굳건히 가겠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후보 측에선 이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기자회견 전에 완주 의지를 미리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윤 후보는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통화 앞뒤 정황상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 관계자는 "문자를 보낸 기록이 남아 있다"며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완주 의사를 밝힌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재확인했다.

양측이 구체적인 통화 내용뿐 아니라 문자 여부를 놓고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당분간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지역 사회복지종사자 3000여명이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선 재외투표 내일부터 시작...115개국서 실시

'전쟁 가능성' 우크라이나 제외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인 재외투표가 23일부터 7일간 진행된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내달 23-28일 전 세계 115개국 177개 재외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선관위가 집계해 해외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수는 22만6162명이다.

다만 우크라이나대사관은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현지 사정에 따라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한 상태.

선관위는 재외선거인에게 여권·주민등록증 등

사치·유혹·생년월일 등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외투표 신고·신청 후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인 23일 전에 귀국하거나 출국하지 않아 외국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인 3월 9일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재외투표소 방역 실시 및 투표소 물품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자 등을 위한 임시 기표소를 운영하는 등 재외국민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단일화 결렬 안에 다시 러브콜 "함께 하자"

통합정부 구상 매개 물밑 접촉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향한 러브콜을 다시 보냈다. 안 후보가 전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 및 대선 완주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단일화 협상 파기로 정권교체 여론 결집이라는 최악의 고비를 일단 넘긴 민주당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동시에 안 후보의 완주를 내심 바라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안 후보가 민주당과 정치를 같이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희망 섞인 분석까지도 내놓고 있다.

선대위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안 후보가 '정치 모

리베'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격렬하게 결렬 선언을 했기 때문에 두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이제는 없다"고 뺨기를 박았다.

이어 "저희는 4차 구도로 가는 것만으로도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한 뒤 "만약 안 후보 쪽과 우리가 뭘 같이 해볼 수 있다면 국민 자체가 (민주당에)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단일화 결렬의 원인이 국민의힘에 있다며 책임론 부각도 시도했다.

조용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안 후보의 결정과 관련, 국민의힘이 대의를 가지고 대선판에 나온 안 후보를 멀리하고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권주자들은) '이 한 몸 희생하겠다' 이런 정도의 각오는 하고 나오시는 것 아니냐"며 "안

후보도 분명히 그런 각오, 그런 대의를 말씀하시고 나온 거고 그래서 단일화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안 후보에게 돌아온 것은 무시, 혹은 멸시, 조롱 이런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안 후보를 향해 "이제 (이 후보와) 함께 당연히 해야 한다"며 "함께 안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향해 가야 한다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 후보가 새정치의 초심으로 돌아가 정말 지금 중요한 선택을 해 줬으면 좋겠다"며 구애하기도 했다.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통합 정부' 구상을 매개로 안 후보에게 지속해서 물밑 접촉을 시도하며 넓은 의미의 정치 연대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비상체제 전환 민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사치·유혹 금지' 공문 발송 '골프' 이광재·박재호 경고 효과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비상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기강 단속 차원에서 '유혹·사치 행동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당에 보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를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광재·박재호 의원이 부산에서 골프를 친 것이 뒤늦게 알려져 경고 조치를 받은 데 따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선대위는 최근 각 시도당에 '선대위 비상 체제 운영 지침'을 보냈다.

민주당은 여기에 "전 당원의 품격 있는 선거 운동을 위한 지침"을 포함했는데, 기존 기강 잡기 차원에서 몇 차례 공지했던 '실언·실화 주의' '방역수칙과 거리두기 위반 금지' 외에 '유혹·사치 행동 엄

격 금지'를 추가했다.

선대위는 이러한 지침을 위반할 경우 공직 직책을 박탈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실시하겠다고도 명시했다.

해당 공문에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왜 이재명인가"를 주제로 한 SNS용 짧은 영상을 제작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선거 운동 방향 제시도 일부 포함됐다.

이날 이낙연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중앙선대위 비공개회의에서 "최근 민주당답지 않은 선거 방식이 많다"며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쓴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의원들을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자기 장사 하지 말아라" "팩트를 중심으로 야당을 비판하라" "지나친 네편치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당부를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오피스텔 신축 부지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대지 156평, 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 매매가-평당 1200만

소유자. 010-3605-5000

경매물건 강력 추천

- 사건번호-2021타경 6943
- 소재지-광주 북구 신안동
- 대지-176평, 상업지역
- 경매일자-2022년 3월 10일

문의. 010-3605-5000